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목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2)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시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고 패배시킴

성경: 엡 3:10-11, 고전 1:24, 30, 겔 1:26-28

- I.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이 걸작품을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진다 — 엡 2:10, 3:10.
- A. ‘걸작품’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로서, 이것은 ‘잘 만들어진 것’, ‘수공품’, 또는 ‘시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
 - B. 시적인 글만 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지혜와 구상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 작품을 시로 여길 수 있다.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 편의 시이다.
 - C.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우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항목,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다(엡 2:15).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후 5:17).
 - 1.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다. 하나님의 걸작품, 곧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일해 넣고 사람을 하나님 자신과 하나로 조성하여 산출한 교회이다.
 - 2.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 주는 하나님의 시이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교회를 통해 알려질 것이다.
 - 3. 찬송은 찬송을 쓴 사람의 지혜를 표현한다. 장차 올 시대들, 곧 천년왕국과 영원 안에는 유일한 찬송으로서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상을 표현할 것이다.
 - 4.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이 놀라운 산출물에 나타난 아름다움과 지혜와 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격찬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일 것이다.
- II.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 고전 1:30.
- A.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다. (1) 의(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롬 5:18). (2) 거룩하게 함(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거룩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롬 6:19, 22) 혼이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 (3) 구속(우리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즉, 우리 몸의 구속(롬 8:23)이다.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빌 3:21, 요일 3:2).

B.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은 다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연관된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1.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라는 표현은 무언가가 현재 실지적이고 체험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셔야 하며,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현재의 실지적인 지혜가 되셔야 한다.
2.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지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길'과 동일하다.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이다.
 - a.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의가 된다 — 롬 10:12-13, 딤후 2:22.
 - b. 매일 매시간 우리는 혼이나 자아 안에 살지 않고, 영 안에 살면서 영을 사용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속된 것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속되게 되는 데서 분별된다.
 - c. 구속은 세 가지 사항, 곧 종결과 대치와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함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를 종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치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신께로 다시 이끄신다. 이것은 실지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옛 요소, 곧 우리의 옛 조성은 종결되고, 새 요소이자 새 조성이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대치된다.

III.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무지개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음을 상징한다 — 계 4:3, 겔 1:26-28.

A. 무지개의 삼원색은 파랑(남보석 보좌의 색깔이며 하나님의 의를 상징함 — 겔 1:26, 시 89:14) 과 빨강(거룩하게 하는 불의 색깔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함 — 겔 1:4, 13, 27, 히 12:29) 과 노랑(달아오른 단쇠의 색깔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함)이다 — 겔 1:4, 27, 히 1:3.

1.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세 가지 신성한 속성이다 — 창 3:24.
 - a. 죽이는 데 사용되는 칼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비교 애 3:42-43, 롬 2:5),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며(신 4:24, 9:3, 히 12:29),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비교 겔 9:3, 10:4, 히 9:5).
 - b.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은 죄 있는 사람에게 내놓은 요구 사항들이다. 죄 있는 사람은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롬 3:10-18, 23),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동참하도록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실 때까지는, 죄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히 10:19-20, 계 22:14).

2.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거룩하게 함)과 영광(구속)이 되었다 — 창 3:24, 고전 1:30, 롬 8:23.
 3.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무지개로 상징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시다 — 사 42:6, 히 8:10-12.
 4.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도록) 의와, (우리의 혼이 변화되도록) 거룩하게 함과, (우리의 몸이 변형되도록) 구속으로서 전달해 넣으신다 — 고전 1:30, 롬 8:10, 12:2, 8:23, 엡 5:25-27.
 5.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그 기초석들이 무지개 모양인 성 — 계 21:19-20)으로서 우리는 한 무지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만드시겠다는 그분의 새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신 것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우주에 전시되실 것이다 — 계 21:10-11.
 6. 이 무지개의 영적인 실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시도록 거룩함의 불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완전한 기회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義)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고전 1:30.
- B.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그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아야 하며, 어떠한 실패나 약함이나 어둠이나 부정적인 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우리의 모든 상황의 필요를 채우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다 — 애 3:22-23, 롬 8:1, 고후 12:9, 딤후 1:10, 2:1, 유 24, 요일 1:9, 고전 1:9.

IV.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도 볼 수 있다.

- A.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시어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분이시다 — 고후 5:21.
- B.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심으로 그분의 유기적인 거룩하게 함에 의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다 — 엡 1:4, 계 21:2.
- C.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신다고 말한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는 영광스럽게 함을 통해 우리의 몸을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는 분이시다 — 롬 8:23.

V.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고 원수가 정복된다 — 엡 3:10.

- A.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

- 위한 것이다(창 1:26).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도록 미리 정해졌고,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림으로써 원수를 정복하도록 운명이 정해졌다.
- B. 우주 안에 그러한 악한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탄이 일으킨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보여 주실 기회를 얻으신다 — 대하 1:10, 비교 골 2:2-3.
 - C. 사탄에게서 비롯된 모든 손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전시하실 좋은 기회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의 지혜를 전시할 더 많은 기회가 있게 된다.
 - D. 주 예수님은 그분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요 2:19)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허무는 일을 한 것은, 주님께 다만 그 허물어진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건축하실 기회를 제공했다.
 - E.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이자 원수의 공격 대상이다 — 마 16:18, 비교 계 1:11-12.
 - F.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 수세대 동안 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실 일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성취하고, 원수를 정복하고 뱀을 내쫓는 것임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계시한다. 이 일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 G. 아들의 자격에 관련해서 우리는 과정 중에 있고, 원수를 정복하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 H. 주님의 안목에서 그리고 교회생활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서, 사탄은 이미 패배당했다 — 요 14:30, 요일 3:8, 히 2:14, 롬 16:20.
 - I.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패배까지도 더 전진된 승리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패배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이다 — 계 5:1-14, 11:15, 12:10-11, 14:8, 19:1-7, 20:10, 14, 21:2, 6, 22:20.

사역의 밑받침에서 발췌

보좌가 있는 맑은 하늘을 갖고 단쇠의 모양을 가진 사람과 소멸하는 불을 체험한 결과, 우리는 무지개 모양을 가질 것이다. 에스겔서 1장 28절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라고 말한다. 무지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을 둘러싼 빛남이다. 이 빛남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둘러싼 광채이자 영광이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노아 시대의 무지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홍수가 온 땅을 멸하고, 그 심판에서 오직 여덟 사람만 남았다. 그 후에 사람들은 하늘에서 폭풍의 구름을 볼 때 멸망할까 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 위를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육체를 지닌 온갖 살아 있는 동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육체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온갖 살아 있는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창 9:13-16) 그러므로 무지개는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표징이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하

여 몇 사람을 남겨 두셨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이들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타락했고 멸망받기에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 두셨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남겨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징인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분의 면전에 아무도 설 수 없지만,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남겨지게 되었다.

무지개 안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색상들이 있지만, 기본 색상은 세 가지 곧 빨강, 노랑, 파랑뿐이다. 이 색상들이 빛나고 섞일 때 주황, 초록, 보라와 같은 색상들을 만들어 낸다. 무지개의 세 가지 주된 색상이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색상들은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에서 본 것과 일치한다. 보좌는 남보석 같고, 단쇠는 노랑고, 불은 빨강다. 이 색상들이 빛나고 굴절됨으로써 결합하여 무지개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색상의 영적인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 파랑은 보좌를 상징한다. 시편 89편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義)이다. 이같이 파랑색 보좌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불은 거룩하게 하고, 분별시키며, 소멸하는 거룩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여기서 빨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노랑은 빛나는 단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파랑, 빨강, 노랑의 색상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세 가지 신성한 속성이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다(고전 1:30). 또한 그분은 이제 우리의 영광이시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롬 3:23),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셨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지닌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바로 의와 거룩함과 영광처럼 보인다.

이것이 우리에게 단지 가르침과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그런 식으로 체험해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맑은 창공이 있고, 보좌가 있으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의롭고 합당하며 부주의하거나 느슨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우리는 달아오르고 빛나며 무게 있는 단쇠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지개의 모습이 있어서 천사들과 마귀들과 사탄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무지개는 그분의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를 살려 두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시이다. 타락하였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러한 무지개의 증거를 지녀야 한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도 무지개의 모습을 지녔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은 열두 층으로 되었는데, 각 층마다 다른 색이다(계 21:19-20). 언젠가 나는 그 기초석의 열두 층의 색상이 무지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기술한 기사를 읽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지개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무지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건축되고, 그

신실하심에 의해 보전됨을 상징한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에 따라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모두를 멸하시지 않고, 멸망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을 영원토록 선포할 것이다. 구원받은 이들의 집합체인 우리는 영원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롭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영원히 증언하는 무지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이들인 우리는 이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신실함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무지개의 모양을 가질 것이다. 성경 끝에는 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견고한 증거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의 체험은 그러한 무지개로 완결될 것이다.

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성취될 것이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보좌, 그분의 거룩한 불, 그분의 영광스러운 본성에 따라 타락한 사람을 심판해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몇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분 자신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증언하는 빛나는 무지개가 되게 하셨다. 이 무지개의 출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했음을 나타낸다. 새 예루살렘의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비록 이 무지개가 영원 안에서 나타나겠지만, 이 빛나는 무지개의 영적 실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며, 모든 것이 순수하고 올바르게 거룩하게 되는 정도까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하나님께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의 본성이 빛나는 금처럼 형제자매들의 인성 안에서, 인성을 통하여 나타나야 함을 뜻한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은 서로 결합하고 반사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빛나는 무지개를 형성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이 다만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리어 이 무지개의 실재가 반드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이들로서 무지개의 모습을 띠어 하나님의 증거를 지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우주에 선포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지니게 되리라는 것을 뜻한다.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12장, 149-153쪽*)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냄으로 원수를 정복함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1:26). 이 형상은 아들의 자격과 관련이 있다.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의 형상의 성취이다. 결국 아들의 자격에 의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새로운 출생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변화에 의해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롬 8:29). 다음으로 변형에 의해 심지어 우리의 물질적인 몸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완전하고도 철저하

계, 안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닐 것이다(요일 3:2).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원수를 정복하고 처리하도록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위임하셨다(창 1:26). 그러므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둘째 항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의 둘째 방면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먼저는 사람이 그분의 형상을 지니기 위해서였고, 다음으로는 사람이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위해 예정되었고, 또한 원수를 정복하도록 운명이 정해졌다. 교회는 원수를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엡 3:10).

뱀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전체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인 창세기에서 3장 이전에 두 개의 장이 있고, 성경 끝 부분인 요한계시록에서 20장 뒤에 또 두 개의 장이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기나긴 기록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기록은 아들의 자격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는 것과 관련된 승리의 기록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옛 뱀은 결박되어 쫓겨날 것이다(2-3, 10절).

모든 패배는 우주적인 승리를 위한 예비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 수세대 동안 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실 일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성취하고, 원수를 정복하고 뱀을 내쫓는 것임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계시한다. 이 일은 교회를 통해, 교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아들의 자격과 관련해서 우리는 현재 과정 중에 있고, 원수를 정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전쟁 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패배당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한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종종 패배는 앞으로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사역 초기에는 어떤 이가 패배하는 것을 보면 유감스러워 했지만, 오늘날은 어떤 이가 패배하는 것을 보더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승리를 위한 예비입니다.”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는 패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는 원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다.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사탄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은 패배를 믿는가, 아니면 승리를 믿는가? 과거에 여러 사랑스러운 이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리 형제님, 우리는 형제님께서서 근심하는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님은 언제나 행복해 보입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근심하는 문제에 관해 따진다면, 결국에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정하지 않으면 내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 세대에

서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인정할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 안에서는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근심하는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심지어 패배도 미래의 승리를 위한 준비이다. 원수가 우리를 패배시키려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두라. 결국 원수는 패배당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어떤 종류의 성경인가? 여러분은 “저는 승리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승리의 책이지 패배의 책이 아니다. 여러분은 성경 육십육 권 중 몇 권을 갖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이 빠진 육십오 권만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의 하락에 관해 언급한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을 나에게 제시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의 가련한 상태를 나에게 보여 줄지 모른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처음 세 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스물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장에 머무르지 말고 2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 보라. 그럴 때 우주적인 할렐루야가 있을 것이다. 온 우주가 “할렐루야, 승리!”라고 외칠 것이다.

이 성경 안에는 구약(옛 유언)과 신약(새 유언)이 있다. 유언은 성취된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만 받아들인다. 우리의 승리는 이 유언의 한 항목이다. 주님의 눈에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다. 이것은 처리된 문제이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예지와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다. 교회에게는 승리와 패배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심지어 패배도 승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탄, 심지어 너의 승리도 우리의 승리를 위한 예비 작업일 뿐이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 결국 패배하는 자는 너일 것이다. 나는 네가 얼마나 공격하고 손상을 입히는지에 관심이 없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파괴하려 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건축하실 것이다. 네가 파괴하는 것은 주님께서 건축하시기 위한 예비 작업일 뿐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온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교회를 참으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어느 날 이 일은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 실행, 건축, 61-64쪽)*